



[산업]  
국내 AI 스피커 시장  
캐나다 제치고  
세계 5위 '코앞'  
04

[유통]  
포카칩 30주년  
누적매출액  
Life 1조4000억원 돌파  
L1

장안평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 건축규제 완화로 재생사업 탄력

개발 규모 확대·규제 완화  
미래자동차혁신센터 조성해  
1만1000개 일자리 창출할 것

서울 성동구 장안평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결정으로 시는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면적 52만 3805m<sup>2</sup>)의 일부 불합리한 용도 지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천호대로변에 있는 띠 형태의 7m 구간이 3종 일반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아울러 시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규모를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의 시설 특



성(정비, 부품판매, 차 매매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건폐율·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인들에게는 공공임대 공간을 보급할 계획이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지역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장안평 지역은 중고차 매매·부품·정비업 밀집 지역으로 지난 1970년대부터 서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시는 미래자동차혁신센터 조성과 지역산업 거점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매매, 부품, 정비·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근 물류센터와 연계해 중고부품 리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은 "장안평 일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중고차 매매센터 재개발과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장안평 일대가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환기장치 쓰고 계신가요" 10분이면 공기질 개선

환기장치 사용률 20%에 그쳐  
서울시, 사용법·관리요령 안내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20%에 해당하는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기계 사용법이나 존재 여부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세워진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에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 관계자는 "환기장치를 시간당 10분 내외로 가동하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 안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 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잘 익혀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관광공사, 휴가철 맞아 '여름 페스티벌'

관광벤처기업 여름 테마상품 판매

한국관광공사는 14일~15일 서울 종로 청계천로 관광공사 서울센터 1층 야외마당에서 '2018 관광벤처 여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3시~8시 진행되는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50% 이상 할인율로 여름 테마상품을 판매하는 '벤처기업 여름 여행상품 특가전'도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미니보트 경주'와 '수중드론 이미지 찾기'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관광벤처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참가, 관광벤처기

업 상품 구매, 특가 여행상품 예약 등 페스티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관광벤처기업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성장과 외연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으로 매년 선발·육성하고 있다.

함경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방문객들이 관광벤처기업의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소비하면서 국내여행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관광벤처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관광벤처기업 참가, 관광벤처기



5살 생일 맞은 아이바오

1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생일을 하루 앞둔 암컷 판다 아이바오가 사육사들이 준비한 대나무와 꽃으로 만든 케이크와 특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 '몰랑', 서울시 자원봉사 홍보대사 선정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캠페인 홍보

서울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몰랑'을 시 자원봉사센터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찹쌀떡 모양의 토끼종족 몰랑은 2012년 2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 입점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몰랑은 작년부터 EBS TV 만화로도 방영되고 있으며, 디즈니 등의 글로벌 채널에 시즌4까지 배급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다.

몰랑은 소속 캐릭터 회사 '하얀오리' 대표 윤혜지 작가가 재능기부를 결심해 서울시 자원봉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13일 오전 11시 캐릭터 회사 하얀오리와 업무 협약을 맺는다. 몰랑은 향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몰랑은 18~2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서 안부 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캐릭터 홍보대사 '몰랑' 이미지.  
/서울시

문은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녕하세요' 캠페인에 참여해 첫 공식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이번 몰랑 캐릭터 홍보대사 위촉으로 캠페인 홍보는 물론 시민 자원봉사자에게 몰랑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자원봉사의 경험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우리 구청 소식

### 마포구청장 주민센터 순회… 구민과 대화 나눈다

서울 마포구는 16~20일 16개 전동주민센터에서 구청장과 주민이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역구 시·구의원, 동주민자치위원장, 노인회장, 학교장, 119안전센터장 등 각종 직능단체장과 구민들이 모여 마을 현안과 요청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구는 제안된 주민 의견을 향후 구 정책과 각종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마포구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전동주민센터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포구청

### 종로구, 중소상공인에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서울 종로구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企

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사업등록을 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자 등이다. ▲융자신청 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음식점·부동산 등의 서비스업과 그밖의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김현정 기자